

「봉산곡」 _ 채득기

※ 다음 글을 읽고 스스로 해석해보시오.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요양* 만릿길이 멀어야 얼마 멀며
 그곳에서의 일 년이 오래라고 하라마는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발 없는 구리솔 하나 전나귀에 싣고서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 몇 칸 지어 두고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 터를 손수 닦아
 낮에야 일어나고 새 달이 돌아 올 때
 지도리 없는 거적문과 울 없는 가시사립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생애는 내 분수라 담박한들 어찌하리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 되어서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벗하니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벌인 듯
 붉은 놀,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요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용문(龍門)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여덟 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그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 척 솟아올라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어와,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 아니로다
 (중략)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늙자더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상주 십이월에 심양* 가라 부르시니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임금 은혜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삼 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 데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異國)의 겨울 달을 뉘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에 뻗은 침이 삼 년이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꿈은 무릎 언제 펴까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개 신하 되었으니
 삼백 년 예약 문물 어디로 갔단 말고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 물 어찌 퍼 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오나라 궁궐에 섰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 밖에 왕명 좇아 다니리라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 웃지마는
 성은이 망극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 채득기, 「봉산곡」

- *요양: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도움으로 삼았던 곳. 훗날 요양에서 심양으로 천도함.
- *노련의 분노: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부르려는 것에 대한 노련의 분노. 여기서는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를 말함.
- *여섯 자라 머리: 발해 동쪽 바다에 떠 있는 다섯 선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여섯 마리 큰 자라의 머리.
- *심양: 선양. 지금의 요령성 성도.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청나라가 도움으로 삼은 곳.
- *높은 ~ 되었구나: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지 삼 년이 되었음을 나타낸 구절임.
- *오늘날 ~ 관주빈이라: ‘관주빈’은 중국에 사신으로 간다는 말. ‘현재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임.
- *오나라 ~ 매다니: 섰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다짐한다는 ‘와신상담’을 가리킴.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 말임.
- *악비의 ~ 맹세하니: 악비와 조적의 고사를 인용하여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표현한 구절임. 중국 송나라 고종 때의 충신인 악비는 손에 침을 뱉어 맹세하면서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했고, 중국 동진 원제 때 조적은 유민들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면서 중원을 회복할 것을 맹세했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인조 16년(1638)에 창작된 가사로 병자호란 이후 봉림 대군과 소현 세자를 호종하여 심양으로 가게 되자, 은거하던 경천대를 떠나며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이 은거했던 경천대(자천대) 부근의 풍경을 예찬하는 부분과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천대별곡'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 서사: 옥주봉, 경천대에 인사를 전하며 처음 이곳에 은거하던 때를 떠올림.
- 본사 1: 버린 백성 되어 은거하며 살면서 경천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함.(중략)
- 본사 2: 임금의 명을 받아 행장을 챙기며, 임금의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함.
- 결사: 심양으로 떠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함.

✓ 주제 :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은거하던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

- ①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며 금빛 절벽, 구암, 경호 등을 바라보며 경천대와 그 주변의 경치를 즐기고 있으며, 특히 경천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화자는 나라의 명령을 받아 심양으로 떠나는 충직한 신하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면서,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 ②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랑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는 대구의 형식을 활용해 '상봉산 별천지'를 떠나야 하는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떠나야 하는 화자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자연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랑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에는 동일한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시어 제시 순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활용해 화자가 관심을 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천명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전쟁에 패배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하는 굴욕적 예식을 치러야 했고, 청나라는 소현 세자, 봉림 대군과 척화파 등을 볼모로 붙잡아 갔다. 이 작품은 작가 채득기가 볼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던 1638년에 지은 작품으로, 작품 속 화자의 상황은 작가의 실제 삶과 관련이 깊다.
- ⑥ 화자는 왕명을 받아 청나라로 떠나는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양 만릿길'이 '멀어야 얼마 멀'겠냐 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
- ⑦ 화자는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자신이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⑧ 화자는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한 사건을 두고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된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 ⑨ 화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붙잡혀 간 소현 세자 등을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으로 제시하며, 그들이 심양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⑩ 화자는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아 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이어서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다.

[THE - 깊은 독해]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나는) 간다 옥주봉아, 잘 있거라 경천대야.

→ 화자가 옥주봉과 경천대를 떠나는 시적 상황이 제시되었다. 화자의 떠남과 자연물의 남음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옥주봉'과 '경천대'를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대구법 또한 사용되어 있다. 이때 '옥주봉'과 '경천대'는 화자가 은거하는 곳의 명칭지(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요양 만릿길이 멀어야 얼마 멀며

요양까지 만리의 길이 멀다면 얼마나 멀겠으며(=별로 멀지 않음)

→ 화자가 요양으로 떠나는 상황이다. 신하로서 왕명을 받아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요양까지의 길이 실제로는 먼 길이지만 애써 멀지 않다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추스르는 상황이다. 이때 '요양'은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훗날 요양에서 심양으로 천도함) 즉, 화자는 청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면(EBS의 시선 참고) 화자는 지금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데려오기 위해 요양으로 떠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곳에서의 일 년이 오래라고 하라마는

그곳에서 지내게 될 1년이 오랜 기간은 아니겠지마는.

→ 여기서 '그곳'은 문맥상 요양을 가리킨다. 화자는 요양에 가서 1년 정도 머물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요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실제로는 길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려 하고 있다.

▶서사1: 옥주봉, 경천대에 인사를 전하며, 왕명을 받고 요양(=청나라)으로 떠남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경치가 매우 좋은 상봉산에 처음에 들어올 때.

→ 여기서 '별천지'는 특별히 경치 혹은 분위기가 좋은 곳을 의미한다. '상봉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이때 '상봉산'은 천주봉 아래 봉우리로, 화자가 그동안 거쳐해 온 장소이다. 앞서 나온 '옥주봉', '경천대'는 상봉산에 있는 지명일 것이다. 과거에 상봉산에 들어왔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노련이 분노한 것처럼 (화자도) 분노가 일어나서 속세와 단절하고.

→ 화자가 속세를 떠나 상봉산에 은거한 이유가 나타나 있다. 바로 노련의 분노 때문이다. 이는 고사를 인용한 표현으로,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부르려는 것에 대한 노련의 분노를 의미한다. 해당 작품에서는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를 말할 것이다. 이때 '노련'은 중국 전국시대 선비로, 고상한 절조와 지조를 가졌고, 항상 남을 위해 어려움을 물리쳤지만 스스로는 재물이나 녹봉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고사를 인용하여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기로 한 조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발 없는 구리술 하나 전나귀에 싣고서

술발이 떨어진 구리술 하나를 저는 나귀에 싣고서

→ 여기서 '전나귀'는 다리를 절름거리거나 나귀를 의미한다. 상봉산에 들어올 당시 화자의 소박하고 간편한 여행 차림이 나타난다.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 찾아와서

가을 바람이 부는 돌길을 걸어 와룡강에 찾아와서

→ '추풍'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와룡강'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농사를 지으며 지냈던 곳에 있는 강으로, 해당 작품에서는 화자가 은거한 곳의 강을 가리킨다.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 몇 칸 지어 두고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집 몇 칸을 지어 두고

→ 여기서 '천주봉'은 화자가 정착한 곳으로, 속세와 단절돼 유유자적하든 삶의 공간이다. '초가 몇 칸'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천주봉'은 화자가 거처한 곳의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 터를 손수 닦아

살구꽃이 필 때 거문고 타던 곳에 정자 터를 손수 닦아

→ '와룡강', '천주봉', '고슬단' 등은 화자가 은거한 지역의 명소들을 말한다. '정자 터를 손수 닦아'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직접 정자 터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낮에야 일어나고 새 달이 돌아올 제

한낮이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달이 떠오를 때

→ '낮에야 일어나'는 것을 보아 세속적인 생로사에서 벗어난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리 없는 거적문과 울 없는 가시 사람

둘째귀(기둥) 없이 거적을 친 문과 울타리 없는 가시나무 사람문

→ 일반적으로는 지도리와 울타리가 모두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화자의 소박한 주거 환경이 드러난다. 또한,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를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문고리도 울타리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고요하고 쓸쓸한 산골에 직접 형성한 마을이 더욱 보기 좋다.

→ '적막한'이라는 시어를 보고 해당 장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적막한 산골'은 글의 문맥상 속세와 먼 자연의 장소로서, 산골에 은거한 채 고요하고 한가롭게 살아가기에 알맞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화자도 '더욱 좋다'며 손수 일군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사2: 청나라에 대한 분노로 속세를 떠나 처음 이곳에 은거하던 때를 떠올림.

생애는 내 분수라 담박한들 어찌하리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분수에 맞으니, 담박하게 살아간들 어찌하겠는가.

→ 자연에 은거하며 욕심 없이 담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의 분수에 맞아서 만족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난다.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 되어서

밝은 세상의 한쪽 귀퉁이에 버려진 백성이 되어서.

→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청나라에 굴복하고 은거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 즉, 청나라에 대한 치욕으로 인해 자연에 은거한 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다.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벗하니

소나무와 국화를 쓰다듬고 원숭이와 학을 벗으로 삼으니

→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모습, 몰아일체의 태도가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원숭이와 학은 부귀와 관련이 있으나, 여기서는 도교(신선) 사상과 연관되어, 자연친화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아, 이 강산이 경치도 참으로 좋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높은 금빛 절벽이 허공에 솟아올라

→ 우뚝 서 있는 절벽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금빛 절벽'은 아름다운 나무로 덮인 절벽 또는 단풍 든 절벽을 의미한다.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금빛 절벽이) 거북이 바위를 앞에 두고

맑은 호수 위에 서 있는 모양은.

→ 여기서 '구암'은 실제 지역의 자연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인지, 혹은 자연 풍경을 작가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여기서는 고유명사로 풀이하였다. '경호'는 거울 같은 호수라는 뜻으로, 맑은 호수를 의미한다.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벌인 듯

삼신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여섯 마리의 자라의 머리 위에 펼쳐 있는 듯.

→ 거북 바위를 앞에 두고 맑은 호수 위에 우뚝 서 있는 금빛 절벽의 아름다움을 삼신산 제일봉에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삼신산'은 중국 전설상의 세 산인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하며, '여섯 자라 머리'는 발해 동쪽 바다에 떠 있는 다섯 선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여섯 마리의 큰 자라 머리를 말한다.

붉은 놀,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요

붉은 노을과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 저 있고

→ 색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유리 같은 온갖 경치가 넓은 땅에 펼쳐 있으니

→ 깨끗하고 맑은 경치를 유리에 비유하고 있다. '빈 땅에 깔렸'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의미로, 충만함의 정서를 환기한다.

용문(龍門)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용문의 옆으로 펼쳐진 모래밭은

→ 해당 '모래밭'은 경천대 강 건너편에 펼쳐진 흰 모래밭으로, '학사'라고 불린다.

여덟 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여덟 폭의 돌병풍을 옥난간에 둘러놓은 듯하고

→ 길게 펼쳐진 모래밭의 모습을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맑은 모래와 흰 돌이 여러 굽이를 이루어 뛰어난 경치로구나.

→ 모래밭의 뛰어난 풍경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더 나은가?

→ 해당 구절은 '그 중'의 의미에 따라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중'을 **지금까지 바라본** 자연 경치로 해석한다면, 해당 구절은 <지금까지 바라본 것 중 무엇이 더 나은가>로 해석되며, 무엇이 더 낫다고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자연 경치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을 '자연'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구절은 물음의 형식을 통해 뒤에 나오는 '경천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중에 좋고 나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나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뒤에 '경천대'를 제시하는 문단의 구조인 것이다. 경천대가 가장 뛰어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통은 후자로 해석하여, 여러 경관 중에서도 경천대가 가장 뛰어난을 나타내다고 본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암기하기 보다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 척 솟아올라

거북 모양의 바위가 물을 굽혀서 아주 높게 솟아올라.

→ 목표를 묘사한 구절이다.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물이 솟아 오르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구름 위로 우뚝 솟아서 하늘을 받쳤으니.

→ 구암이 높게 솟아올라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과장된 표현이다.

어와,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 아니로다

아, 경천대야, 너의 명성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 높게 솟아올라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구암이 곧 '경천대'인 것이다. 경천대의 뛰어난 경관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 아니로다'라는 것은 '경천'이 하늘을 떠받친다는 뜻이므로 이름이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EBS 미수록 중략 부분

문장이 넉넉한들 누구의 시로 다 써내며

(시인의) 문장 솜씨가 좋다고 한들 누구의 시로 다 써내며

화가가 신묘한들 한 붓으로 다 그릴까

화가의 재주가 신통하다고 한들

한 사람의 붓으로 다 그릴 수 있겠는가?(=다 그릴 수 없다)

→ 뛰어난 시인도 경천대의 아름다움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뛰어난 화가도 경천대를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거적인 표현을 통해 경천대의 뛰어난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가을바람이 건듯 불어 잎잎마다 붉었으니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 잎마다 붉게 물들었으니

→ 가을 단풍을 묘사하고 있다. 계절감과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물들인 직녀의 비단 거울 표면에 걸렸는 듯

물을 들어서 직녀가 짠 비단인

거울의 표면에 걸려있는 듯 아름답다.

→ '비단'은 붉은 잎을, '거울 표면'은 호수의 수면을 비유한 표현이다. 단풍이 물에 비친 모습을 직녀가 짠 비단이 거울에 걸린 모습이 비유하고 있다.

꽃향기는 코에 가득하고 온갖 열매는 익었는데

→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가을에 꽃이 피어 있는 풍경을 간접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열매'가 '익었다'는 표현은 가을의 풍성함을 환기한다.

매화 화분 치자 그릇에 황국 백국 섞였구나

매화를 심은 화분과 치자를 심은 그릇에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가 섞여 있구나.

→ 여기서 '매화'와 '국화'는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또한 국화는 가을의 계절감을 환기한다.

풍경도 좋지마는 물색도 그지없다

풍경도 참 좋고 사물의 빛깔도 매우 좋다

→ '그지없다'는 끝이나 한량이 없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구절은 경치 모습과 빛깔이 매우 좋다는 뜻으로,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연관 - 기출문제]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늪자더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상주 십이월에 심양 가라 부르시니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임금 은혜 감격하여 행장을 바빠 챙기니
 삼 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겹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 데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 달을 뉘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에 뻗은 침이 삼 년이 되었구나
 ㉡ 굴욕이 이리한데 꽃은 무릎 언제 펼까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되었으니
 ㉢ 삼백 년 예악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고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 ㉣ 물 어찌 퍼 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오나라 궁궐에 섰을 쌀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 입었으니
 ㉤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어리석은 계약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 리 밖에 왕명 좇아 다니리라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 웃지마는
 성은이 망극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 채득기, 「봉산곡」 -

(나)

강(江)·회(淮)·하(河)·한(漢)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

들이 다 반총(蟠冢)·동백(桐柏)·곤륜(崑崙)·민산(岷山)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기며 고여 있으나, 땅 위에 나오게 되면 흐르고 움직이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괘(師卦)*를 만든 후에 비괘(比卦)*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잇닿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浩浩)하고 패연히 넓고 넓어 왈각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동(河東)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하였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冷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동네 노인들이 서로 와서 치하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聖君)과 지기(知己)를 만나 그 도를 천하에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또한 ㉤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험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고 하였다. 나도 또한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 이첨, 「원수」 -

* 사괘: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땅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 비괘: 육십사괘의 하나.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1.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내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시간으로 형상화하여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질문의 형태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 ㉓,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는 화자에게 내면의 만족감을 주는, ㉔는 글쓴이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소재이다.
- ② ㉓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갈구하는 화자의 소망이, ㉔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영된 소재이다.
- ③ ㉓는 화자에게 근심과 시름을 떨쳐 내게 하는, ㉔는 글쓴이에게 과거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④ ㉓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을, ㉔는 인재 등용에 대한 글쓴이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㉓는 치욕을 청산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㉔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이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 반영된 소재이다.

3.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부족한 자신을 찾아 주신 임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 갓은 굴욕 속에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 고유의 전통을 잃어버린 당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왕명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㉔ : 부정적 현실에 대해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곡」은 작가인 채득기가 불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가면서 지은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작가가 왕명을 받들어 지체 없이 행장을 꾸리고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가는 은거지였던 상주를 떠나 심양으로 향하며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떠올리고 심란해하기도 하지만, 충군의 태도를 드러내며 결의를 다진다. 또한 훗날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자신의 은거지인 경천대로 다시 돌아올 희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늪’고자 했다는 점에서,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소망했던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심양 가라’는 왕명을 받고 ‘잠시인들 머물겠’냐고 했다는 점에서, 신하로서 왕명을 받들고 지체 없이 청나라로 떠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 ③ ‘이국의 겨울 달을 뉘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겪을지 걱정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심란해하는 작가의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④ ‘생사’를 ‘깃털처럼 여기고’ ‘왕명 좇아 다니’겠다고 한 것에서, 충군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가의 결의를 엿볼 수 있군.
- ⑤ ‘성운’을 ‘값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것에서, 신하의 도리를 다한 후 다시 은거지로 돌아오겠다는 작가의 희망을 엿볼 수 있군.

5.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치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 ② 유추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속성을 인간사로 확장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의 삶의 대비를 바탕으로 과오를 성찰하고 있다.
- ④ 종교적 깨달음을 일반화하여 다른 여러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일화를 통해 통념의 한계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⑥

⑤ (가)의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동해 물 어찌 퍼 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등에서, (나)의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등에서 질문의 형태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나)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기 위해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나)에서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③ (가)에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시간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④ (나)의 ‘방울방울’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정답 SCAN] ⑥

⑤ ㉔는 ‘이 굴욕 씻을런가’를 볼 때 치욕을 청산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반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고, ㉕는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를 볼 때 현상에만 집착하는 이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 반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㉔를 통해 굴욕을 씻는다는 점에서는 화자에게 내면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소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㉕가 글쓴이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② ㉕를 통해 인재 등용에 대한 글쓴이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영되는 소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㉔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갈구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③ ㉔를 통해 치욕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근심과 시름을 떨쳐 내게 하는 소재로 볼 수도 있지만, ㉕가 글쓴이에게 과거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④ ㉔를 통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㉕를 통해 인재 등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글쓴이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3.

[정답 SCAN] ②

② ‘굴욕이 이러한데 꺾은 무릎 언제 펴까’에서 굴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임’, ‘임금’과 관련한 것으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SCAN]

- 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에서는 재주 없는 자신을 임금이 알고 찾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 ③ ‘삼백 년 예악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고’에서는 고유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예악 문물을 잃어버린 당대 사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 ④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에서는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명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 ⑤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아녀자의 태도로다’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슬퍼하고 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4.

[정답 SCAN] ③

③ 화자는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 달을 뉘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겪을지 걱정했다. 이는 심양으로 향하며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떠올리고 심란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심란해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SCAN]

- ① 화자는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늪’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세속을 멀리하고 은거지였던 상주의 경천대, 즉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소망했던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심양 가라’는 왕명을 받고 ‘잠시인들 머물겠’냐고 한다. 이를 통해 신하로서 왕명을 받들고 불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모시러 지체 없이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④ 화자는 ‘생사’를 ‘깃털처럼 여기고’ ‘왕명 좇아 다니’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충군의 태도와 결의를 다지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성은’을 ‘값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신하의 도리를 다한 후 다시 자신의 은거지인 경천대로 돌아오겠다는 작가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